

## ‘외국인 느는데’ 광주외사계 폐지... 일방개편에 치안 어찌나

### 광주청·일선서 외사 경찰 20여명, 한자릿수 광주 외국인 절반 광산구, 지원 공백 우려 “지역 치안 수요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해체·축소하는 경찰청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유입 증가세인 광주에서도 외사계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범죄 예방과 대응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 지적이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계 해체·축소안에 따라 광주 지역 외국인 담당 경

찰이 21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외사 경찰은 광주청 9명, 광산서 5명, 북부서 4명, 동·서·남부서 각 1명 등 총 21명인데 개편 이후에는 3명만 광주청에서 외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외국인 지원 업무도 분산된다. 다문화 관련 업무는 범죄예방과,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은 여성청소년과, 통역은 수사과, 국제 공조는

형사과, 테러 대응은 안보수사과로 나뉜다. 외사계 폐지를 앞두고 외국인 관련 수사 공조의 어려움이나 치안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최근 5년 간 마약·폭력·성범죄·절도·살인·강도 등을 저질러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는 매년 500~600명이다.

특히 공단 밀집 구역과 고려인마을이 있는 광산구의 경우 외국인 수가 2만5108명(2022년 기준)으로, 광주 전체 외국인(4만4063명)의 56.9%를 차지한다. 광산구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2만3000여 명에서 5년새 1700여 명이 늘었다.

경찰은 고려인마을의 외국인 범죄가 늘자

2022년 9월 ‘외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수사 시 각 나라의 문화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외사계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전담 인원이 없으면 마약·음의자 검거 등 수사 공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서는 우즈베키스탄·베트남·캄보디아 등 나라 별 전담 외사관을 지정, 외국인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수를 유도하거나 마약 수사를 돕기도 했다.

고려인마을 관계자는 “외사계가 유학생 지원부터 범죄 예방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 관련 업무가 흩어지면 외국인 치안이 소홀해 지

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이 개편 방침을 정한 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개편되는 조직에 외사 업무를 충분히 안내하고, 다문화 전담반을 꾸려 치안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 한국건설도 유동성 위기설 확산... “중도금 이자 못내”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이 금융권에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 아파트 사업장들이 어렵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양 계약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최근 동구 등에 짓고 있는 4개 단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중도금 이자 납입 지연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국건설은 “회사가 시공한 사업과 관련해 고객님의 중도금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를 믿고 아낌없이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피해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님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해당 아파트 분양자들은 최근 대출 실행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독촉’ 안내 문자를 받았다.

안내문에는 “시공사인 한국건설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중도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없다”며 “건설사측이 중도금 이자를 내지 않았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이 금융권에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

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은행측은 해당 아파트 공정률이 50% 이상을 보여야 함에도 30%대의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9월 이후에 관련 공정률을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이 이뤄져 중도금 대출 이자를 한국건설이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건설이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의 계약이 이뤄져 피해는 분양자가 떠 맡게 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인 ‘아델리움57’ 분양 계약자들은 억대의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까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광주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건설 원자재가 상승 등을 견디지 못한 지방 아파트 사업장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한국건설을 비롯해 지역 상당수 건설사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혁면기자



‘제주도는 유채꽃 활짝, 봄기운 성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유채꽃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른 봄꽃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전남도, ‘3高 신음’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 1000억 푼다

전남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시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정, 특별 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가 지역 10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제

단과 협업체 마련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 모델이다.

기관 간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0억 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전남신보는 보증 비율을 최대 100% 상향한 우대보증을 지원하며, 도는 이자 지원율을 기존 2~2.5%에서 3~3.5%로 1%포인트

트 상향 지원한다.

특히 특별 이자지원은 대출 가산금리를 신용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 2.0%, 중·저신용자 1.7%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낮은 금리로 이 용도록 하고 있다.

지원 유형도 확대된다.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2개에 더해 올해부터는 3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자금을 신설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